

다사다난했던 한 해, 큰 성과 거양

2007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지만 과연 올해에 비길 수 있으랴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 이어 지난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전 해양수산인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모토로 하여 2012년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 여수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운동 기간 중 다소의 아쉬움을 남긴 채 한 걸음씩 물러나 승자는 국민에 대한 겸손을, 패자는 승자에 대한 승복을 선언함으로써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모쪼록 대통령 당선자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새해 국정을 운용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반면에 지난 7일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상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태계 파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느 해보다도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완수, 큰 성과를 거둔 그런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특히 이번 한 해 협회에서는 어촌 어항 어장의 기반조성을 위한 조사 연구분야의 업무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렸고 볼 수 있다. 6개 권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완료하였고,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어촌정주어항기본계획 용역사업을 수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104개 국가어항의 620여개 시설물 정기점검 2회, 6개 어항에 대한 수중정밀점검 실시 등 3년차 수행한 어항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는 이제 기술력과 능력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제10회 한·일 어촌어항기술교류회의를 서울과 통영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제59회 일본전국어항어장대회 참석, 제21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 파견 등은 민간차원의 어촌어항 어장 부문 국제교류 확대는 물론 우리의 안목을 국제화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이와함께 어항 청소선 관리 운영을 그 어느 해보다 철저히 수행했으며, 특히 해양폐기물수거처리사업과 함께 서해특정해역폐기물수거처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장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 협회가 또 한가지 자랑할만한 사업은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기존의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에다 지방자치

단체의 행사를 추가로 맡아 28회의 행사를 대과없이 수행하였다. 연중 주말없이 행사를 진행해 왔던 관계직원의 노고에 비례하여 행사에 참여한 도시민의 반응도 좋았다. 올해에는 특히 라디오 방송, 중앙일간지, 지하철 무료지 등의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어촌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고, 어촌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관광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새해에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 더욱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

먼저, 어촌·어항·어장의 연계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어항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어항 기능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어항 및 연안수역의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어촌·어항의 관광 진흥 및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노력하고자 한다.

특히 변화의 큰 물결에 합류하여 연안역의 종합발전과 수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최고의 공공단체로 도약하고자 하며, 관계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정부 관계자와 어촌어항인, 수산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